

제 64회 '최고상 작품 발표회'



현악 중주 최고상을 수상한 중등부 연합팀의 한수연·정하은·홍지유·한수민 양 (왼쪽부터)

“최고의 무대... 세계적 예술가로 성장하길”



한국무용 창작 최고상 조은빛(광주예고3)양

발레부터 성악까지 수준높은 무대 미술·시·산문 부문 작품도 전시

광주일보사가 주최하는 '예술 꿈나무들의 등용문' 호남예술제가 22일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제64회 호남예술제 최고상 작품 발표회·시상식'을 끝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지난 4월부터 두달여간 남부대학교 등지에서 열린 올해 행사에는 전국에서 8000여명의 학생들이 참여해 무용, 음악, 국악, 합주, 작문, 미술·간만화 수상을 놓고 열띤 경쟁을 벌였다. 올해 행사의 경우 운문과 산문 분야에서 고양 화수고 박규리양과 인천 문일여고 조수민양이 최고상을 수상하는 등 전국대회의 면모를 과시했다.

이날 최고상 발표회가 열린 공연장에는 수상자를 비롯해 가족, 교사 등이 참석해 뛰어난 기량·재능을 보여준 최고상 수상자들의 무대를 감상했다.

무용부분 최고상 수상자들의 무대가 펼쳐진 1부에서는 발레창작 부문의 이아인(동림초 4년), 한국무용창작 부문의 조은빛(광주예고 3년), 현대무용의 김노연(광주수피아여고 2년) 양이 개성넘치는 춤사위를 선보였다. 2부는 음악부문 최고상 수상자들의 무대로 꾸며졌다. 초등학교 피아노 연주자부터 단단한 울림으로 좌중을 압도한 고등학생 성악가까지 모두 15명이 출연, 빼어난 재능을 선보였으며 한수연 양 등 4명이 호흡을 맞춘 '중등부 연합팀'의 현악 중주 무대 '파사칼리아'는 완벽한 호흡을 자랑, 눈길을 끌었다.

또 로비에는 노민준(일곡초 2년) 군 등 미술·시·산문 최고상 수상자 10명의 작품이 전시됐다.

2부가 끝난 후 각 부문 최고상 시상식이 열렸다. 이날 시상식에선 종합 최고상을 받은 광주송원초등학교, 석곡중학교, 광주예술고등학교와 28명의 개인 수상자들에게 상패와 상금이 전달됐으며, 관객들은 꽃다발과 박수갈채로 축하의 마음을 전했다.

김여송 광주일보 사장은 인사말에서 "전국 8000여명의 학생 중 최고상 수상자로 선정된 28명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을 해낸 것"이라며 축하의 말을 전했다. 또 "전통의 호남예술제를 거쳐 간 이들이 세



성악 최고상 주창우(광주남초2)군

계에서 이름을 떨치는 훌륭한 예술가로 성장할 경우가 많다"며 예술 꿈나무들을 격려하고 교사와 학부모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광주일보사 전신 옛 전남일보가 1955년부터 개최 온 호남예술제는 지금까지 60여만 명의 학생들이 참여하며 광주·전남뿐 아니라 명실상부 전국을 대표하는 종합예술제로 이름을 알렸다.

각 부문 역대 수상자들은 현재 문화계에서 아티스트로, 교육자로 자리잡았으며, 젊은 예술인들의 경우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가 기량을 펼치고 있다. 클래식 부문에서는 제60회 부조니 콩쿠르에서 한국인 최초로 우승한 피아니스트 문지영씨, 파가니니 국제콩쿠르 입상자인 바이올리니스트 신지아씨 등이 대표적이며 무용 부문에서는 조중고 시절 5차례 최고상을 수상했던 '한국 발레계의 대모' 김선희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뉴욕에서 'WHITEWAVE-김영순 댄스 컴퍼니'를 이끌고 있는 현대무용가 김영순씨 등이 눈에 띈다.

교육자로는 강숙자, 정애연, 박계, 조수현, 길애령, 김진숙, 김혜경, 서영화, 박행숙 서차영, 김화레, 임지형, 김화숙, 김미숙, 임지형, 박준희, 정희자, 박선숙 등 전현직 교수들이 대표적이다.

/유연재 기자 yjyou@/최현배 기자 choi@

'Movement' 강태웅 초대전, 29일까지 원갤러리

자신만의 독특한 추상작업을 펼치고 있는 서양화가 강태웅 초대전이 오는 29일까지 광주 예술의 거리 원갤러리에서 열린다.

'Movement'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는 '꿈과 일상', '흔적' 등의 시리즈 작품을 통해 자연과의 소통을 주제로 작업해온 강 작가가 지난 2017년 경남 하동 인근에 머물며 관찰한 자연의 모습을 풀어낸 작품을 모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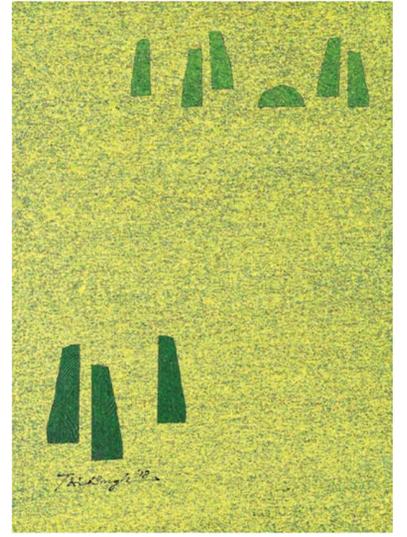
자신의 작품 세계에 대해 "점점 황폐해져가는 인간성을 회복하고 순수한 인간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방법은 자연과 함께 호흡하면서 참된 나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강 작가는 이번 시리즈는 "중층 구조의 화면을 통해 내면과 외연, 음과 양의 조화를 추구하면서 제작한 작품"이라고 설명한다.

기존의 어두운 색감에서 탈피, 녹색·파랑 등을 주조 삼아 자유로운 붓질로 자신만의 추상 세계를 구현해낸 'Movement' 연작에 대해 안현정 미술평론가는 "차고 비워냄이, 한 화면 안에 역동하는 모습으로 색채들이 관계를 맺는 방식은 동양 사상의 핵심인 중용의 가치와도 맥을 같이 한다"고 말한다.

신안 출신인 강 작가는 중앙대 예술대학 회화학과와 대학원을 졸업하고 30대 후반 뒤늦게는 나이에 도미, 펜실베이니아주립 브롬스버그

대학원을 졸업했다. 미국에서 오랫동안 활동 후 현재 중앙대 예술대학 교수로 재직중이며 에포크, 후이즈 후, 창미미술협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문의 062-222-6547.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Movement 1805'

'積' 정명숙 개인전, 7월2일까지 소촌아트팩토리

정명숙 작가는 지난해 화순군 능주면에 작업실을 마련했다. 그곳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작은 풀과 나무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도심에서 보지 못했던 색깔들도 새삼스레 마음에 담았다. 복숭아꽃, 들꽃, 장미, 연꽃빛 새싹들이 어우러진 풍경은 '무릉도원'처럼 느껴졌고, 그 감성을 자신의 작업 속에 풀어내기 시작했다.

오는 7월2일까지 소촌아트팩토리 큐브미술관에서 열리는 전시 제목 '積-담고 거닐다'에는 작가의 마음이 그대로 담겨 있다. 평면 위에 수없이 많은 동그라미를 붙이는 작업을 진행해온 그녀는 자신이 자연 속을 거닐며 마음에 담았던 풍광들을 차곡차곡 '쌓아낸'(積)작품을 전시 중이다. 100호가 넘는 대작에 동그라미를 빼곡히 붙여놓은 작품에서는 작가의 공력을 느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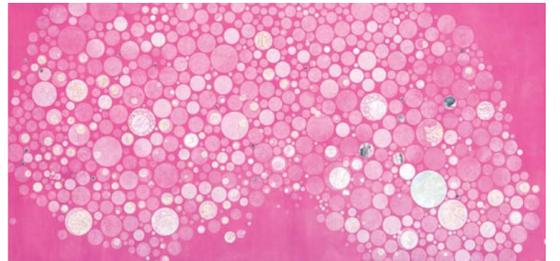
작가는 각양각색의 한지를 오린 작은 동그라미를 화폭 가득 채우고, 다양한 문양의 자개와 스펅글을 붙이고, 어두운 배경 화면을 화려한 금박 동그라미로 짙게 채워넣는 등 재료 실험을 해가며 다양한 형상을 만들어갔다. '벚꽃길에서', '복숭아 꽃이 피

었을 때' 등의 작품은 직접적인 꽃의 모습을 보여주지 보다는 트레이드 마크인 동그라미의 중첩과 자연의 색감을 담은 색채의 변화를 통해 신비로운 분위기를 연출하며 각기 다른 크기의 동그라미가 어우러져 또 다른 형태를 만들어낸다.

이번 작품은 전시 공간 소촌 아트팩토리와 어울려 보는 재미가 더한다. 색채의 그라데이션이 인상적인 작품은 전시장의 넓은 유리창으로 보이는 푸른 나무, 파란 하늘 등 자연과 어우러져 색다른 감상 포인트를 제공한다.

조선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와 동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한 정 작가는 광주시미술대전 대상 등을 수상했으며 선목회, 에포크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문의 062-960-3685.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도원을 거닐다 1'

2~3년만 가는 방수? 20년 이상 너끈히 가는 옥상방수!

IPALG 트라이슈머 단일복합시트방수

완벽방수, 내구성보장, 2중단열, 지진에 강한 탁월한 내구성, 6년무상A/S 정기점검

1.시공전, 2.단열베이스카펫 시공, 3.트라이슈머 단일복합시트 시공, 4.시공후

주책 맞춤형디자인 시공후, 시공전, IPALG 초등학교 맞춤형디자인 시공후

완벽한방수, 난연소재, 맞춤형디자인, 2중복합단열, 내진보강

IPALG 트라이슈머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건물에 맞춤형 디자인을 입혀 리모델링 하세요!

6년무상A/S/정기점검

특허공법 · 디자인방수 · 외벽리모델링 전문기업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검색창에 **이파엘지**

광주전남대리점 (062)511-0444

H.P 010-6603-0405

목포 (061)284-0485 여수 (061)683-0485

순천 (061)726-0482 광양 (061)795-0485

공식홈페이지 www.IPALG.co.kr

공식블로그 blog.naver.com/waterproof01

SINCE 1982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보세요”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국제보청기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

Beltone

2015~2019 대한민국소비자대상 소비자브랜드부문 [5년 연속] 수상

2016 미국 라스베이거스 CES 수상 혁신상 [혁신기술상] 수상

2017 미국 빅 이노베이션 어워드 (BIG Innovation Award) 수상 [혁신상품부문] 수상